

## 청소년의 행동 및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학대와의 관계

안 해 영\* · 이 꽃 메\*\*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가정 안에서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가 발생하는 이유의 초점은 정서적으로 미숙한 부모에게 양육에 대한 흥미가 결여되어 있고 아동의 행동을 이해하는 공감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만 자기 맘에 들지 않으면 아동을 구타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아동 요인으로 문제행동 내지는 과다행동(hyperactivity) 등도 아동학대 유발요인으로 꼽힌다(Yoon, 2000). 최근 Hong(2000)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52개 지역에서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1,094 가구의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신체적 아동학대 발생률은 23.5%였다. 우리나라 아동 학대 발생률이 외국의 경우에 비해 높은 수준에 달하고, 특히 체벌의 경우가 74.6%에 달하여 구타나 폭행 및 상해로의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아동을 부적절하게 다루고 양육하는 부모들에 대한 부모교육 및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시킴으로서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아동에게 가해진 모든 형태의 학대는 신체적 손상 뿐 아니라 일생을 통하여 치료하기 힘들고 자존심과 독립심을 파괴하는 마음의 깊은 상처로 남을 수도 있다. 특히 가정에서 학습된 폭력은 오늘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으로 연결되고 있으며, 폭력을 경험

한 아동은 성인이 되어 폭력의 가해자가 된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아동학대의 세습화를 예방하고 밝고 건전한 미래사회를 만들기 위한 아동학대의 예방, 치료는 우리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중대 과제가 아닐 수 없다(Ahn, 1999)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들의 행동양식 및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신체적 아동학대의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변수가 청소년의 신체적 아동학대와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고찰하여 청소년 학대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청소년의 행동양식은 신체적 학대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지 파악한다.
- 2) 청소년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신체적 학대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지 파악한다.

####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일개 중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전체 청소년으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다.

\* 을지의과대학교 간호학과, 교신 저자

\*\* 을지의과대학교 간호학과

## II. 연구방법

###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청소년의 행동양식 및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신체적 아동학대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횡단적으로 자료를 수집한 조사연구이다.

### 2. 연구 대상

대상자의 선택 기준은 중등학교에 재학하면서 설문지의 내용을 이해하고 연구의 참여에 동의한 학생으로 하였다. 이상의 기준에 맞는 T시 일개 중등학교의 4개 학급 학생 160명을 대상으로 편의 표출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K-YSR 측정 도구에 의해 탈락된 자료가 일차적으로 제거되고 불충분하다고 생각되는 사례를 버린 후 총 116개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 3. 연구 도구

#### 1) 청소년 자기 행동평가 도구(K-YSR)

한국판 청소년 자기 행동 평가 도구는 미국판 YSR을 토대로 하여 크게 사회 능력 척도(Social Competence Scale)와 문제 행동 증후군 척도(Behavior Problem Scale)로 구성되어 있다. Achenbach(1983)가 개발한 아동행동평가척도(Child Behavior Checklist: CBCL)를 Oh et al(1997)가 표준화한 아동 행동평가척도(K-CBCL)와 같은 체계로 사용하였다. K-CBCL의 청소년용 자가보고 척도(Youth Self Report)라고 말할 수 있는 K-YSR은 청소년용과 부모용의 도구가 있으며, 11-18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고 부모용 척도에서 청소년에게 적합하지 않은 문항 16개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문항으로 대체하였으며, 1995-1998까지 표준화 작업이 이루어졌다(Oh et al, 2001). 이 도구는 20여 개국에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청소년용 질문지만 이용하였다.

#### (1) 사회능력척도

사회능력척도는 활동(Activities Scale), 사회성(Social Scale), 그리고 학교(School Scale)의 세 하위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활동척도는 운동, 취미활동, 수업

이나 집안일 등에의 참여정도에 관한 9항목으로, 사회성 척도는 가족관계, 친구관계 등을 포함한 대인관계에 관한 10항목으로, 그리고 학교척도는 학업성적 및 학교에서의 적응상태에 관한 4항목으로 각각 구성되어 있다.

#### (2) 문제행동척도

K-YSR은 청소년기에 가장 흔히 보일 수 있는 문제행동증후군을 척도화한 것으로 경험적 방법을 통해 가장 핵심되는 증상들을 추출하였다. 모두 119개 문항으로서 각 문항의 평가는 '전혀 아니다(0)', '가끔 그렇다(1)', '자주 그렇다(2)'의 3점 평정척도로 되어 있다. K-YSR에서는 총 문제행동점수 이외에 청소년기에 두드러지게 보이는 특정 문제와 관련한 진단평가는 물론 내재화 문제(internalizing problem)과 외면화 문제(externalizing problem)의 점수를 각각 산출할 수 있다.

#### 2) 어머니의 양육 태도 도구

아동양육과 훈육에 대한 부모의 문화적 신념에 대한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측정하였다. 도구는 박성연, 이숙(1990)이 만든 것 중 합리적 지도, 애정, 권위주의적 통제, 과보호, 성취, 적극적인 참여의 6개 요인을 사용하였다. 일관적 규제 3문항은 신뢰도가 낮아서 제외하였다. 각 영역별 문항수는 총48개로 구성되어 있다. 개발 당시의 Cronbach  $\alpha$  계수로 추정된 어머니 양육행동의 요인별 신뢰도는 (table 1)과 같다.

각 문항의 반응은 매우 그렇다(5점)에서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1점)까지 5단계의 척도로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 수록 하부 성향이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76- .82 였다.

<Table 1> Reliability of child rearing attitude

sub category	cronbach $\alpha$	No. of items
Rational guidance	.81	9
Affectionate	.83	9
Authoritarian	.72	9
Overprotective	.75	9
Achievement oriented	.72	6
Active participation	.80	6

#### 3) 신체적 아동 학대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 아동학대의 측정 도구는 Straus(1979)의 가족갈등척도(Conflict Tactics Scale) 중에서 폭력 척도를 번안, 수정(Kwon, 1992)한 것을 사용하였다. 가족갈

등 척도는 가족간 갈등 상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취하는 행동지표들로서 추론(reasoning), 언어적 공격(verbal aggression), 그리고 폭력(violence)의 3개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폭력 척도는 폭력정도가 낮은 문항에서부터 점차적으로 폭력정도가 높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상대방에게 신체적인 힘을 사용하여 신체적인 상해를 주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체적 아동 학대의 측정 도구는 3개의 가벼운 정도의 학대와, 도구를 사용하여 심한 상해의 위협에 처하게 하는 3개의 심한 학대와 4개의 아주 심한 학대행위의 1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Kwon(1992)과 Ahn(1998)은 지난 1년 동안 일어난 각 항목의 행동 빈도를 '전혀 없다', '1-2회', '3-11회', '12회 이상'으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 항목 당 '전혀 없다'에 0점, '1-2회'에 1점, '3-11회'에 2점, '12회 이상'에 3점을 주어 점수의 합을 신체적 아동 학대 점수로 사용하였다. 신체적 아동학대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적 아동학대를 많이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 4. 자료수집 절차

연구자가 해당 중등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보건교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소개한 후, 자료수집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다. 그 후 보건교사가 편의추출된 학급 학생들에게 설문지의 목적, 익명의 보장, 설문지 기재요령을 설명한 후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하고 작성된 설문지를 즉시 회수하였다.

#### 5. 자료분석 방법

청소년의 자기 행동 평가는 K-YSR software(Oh et al, 2001)를 이용하였다. 이 프로그램에서 자체적으로 신뢰도가 부족한 자료를 제외시킨 후 각 영역별 점수와 총점 등 분석 자료를 제시하였고, 이 자료를 다시 SPSSWI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백분율과 평균으로, 대상자의 행동양식과 대상자가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평균값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대상자의 행동양식 및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신체적 아동학대와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연령은 16세가 69명(58%)으로 가장 많았고, 14세 35명(29.4%), 15세 10명(8.4%), 13세 5명(4.2%) 순이었다. 학년은 9학년이 78명(65.5%), 7학년이 41명(34.4%)이었다. 성별은 남성이 62(52.1%), 여성이 57명(47.9%)이었다. 형제 순위는 첫째가 53명(44.5%)으로 가장 많았고, 둘째 46명(38.7%), 셋째 10명(8.4%), 넷째 5명(4.2%) 순이었다. 아버지의 교육정도는 고졸이 79명(66.4%)으로 가장 많았고, 대졸 24명(20.2%), 중졸 13명(10.9%), 국졸 2명(1.7%), 무학 1명(0.8%) 순이었다. 어머니의 교육정도는 고졸이 71명(59.7%)으로 가장 많았고, 중졸 26명(21.8%), 대졸 11명(9.2%), 국졸 8명(6.7%) 순이었다. 아버지의 종교는 '없음'이 60명(50.4%)으로 가장 많았고, 불교 33명(27.7%), 기독교 18명(15.1%), 천주교 6명(5%) 순이었다. 어머니의 종교는 '없음'이 39명(32.8%)으로 가장 많았고, 불교 35명(29.4%), 기독교 3명(26.1%), 천주교 9명(7.6%) 순이었다. 사회경제적 상태는 중류 중에 중이 83명(69.7%)으로 가장 많았고, 중하 16명(13.4%), 중상 8명(6.7%), 하류 1명(0.8%) 순이었다(table 2).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s

	Variables	N	%
Age	13	5	4.2
	14	35	29.4
	15	10	8.4
	16	69	58
Grade	7	41	34.4
	9	78	65.5
Sex	Male	62	52.1
	Female	57	47.9
Order of Siblings	1st	53	44.5
	2nd	46	38.7
	3rd	10	8.4
	4th	5	4.2
	Missing	5	4.2

### III. 연구 결과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s (continued)

Variables		N	%
Edu level of father	Under graduate	24	20.2
	High school	79	66.4
	Middle school	13	10.9
	Elementary	2	1.7
	Missing	1	0.8
Edu level of mother	Under graduate	11	9.2
	High school	71	59.7
	Middle school	26	21.8
	Elementary	8	6.7
	Missing	3	2.5
Religion of father	Buddism	33	27.7
	Christianity	18	15.1
	Roman Catholic	6	5
	None	60	50.4
	Missing	2	1.7
Religion of mother	Buddism	35	29.4
	Christianity	31	26.1
	Roman Catholic	9	7.6
	None	39	32.8
	Missing	5	4.2
Socioeconomic state	Upper		
	Middle-upper	8	6.7
	Middle-middle	83	69.7
	Middle-low	16	13.4
	Low	1	0.8
	Missing	11	9.2

2. 대상자의 사회능력

대상 중학생의 사회능력의 하부 항목별 평균값은 사회성이 5.88(1.16), 학습수행이 3.56(0.85), 총 사회능력이 52.09(24.70)이었다(table 3).

<Table 3> Social Competence of Adolescent

Variables	Mean (sd)
social competence	5.88 (1.16)
school competence	3.56 (0.85)
total social competence	52.09 (24.70)

3. 대상자의 문제행동

대상 중학생의 문제행동의 하부 항목별 평균값은 다음과 같다. 위축이 4.19(sd=3.39), 신체 증상이 3.89(5.64), 우울/불안이 8.04(5.56), 사회적 미성숙이 3.35(2.57), 주의집중 문제가 6.64(3.40), 비행이 2.93(2.76), 공격성이 13.06(7.15), 내재화 문제가 15.52(10.70), 외현화 문제가 15.99(8.94), 총 문제행동이 52.09(24.70), 자해/정체감 문제가 2.05(3.25)이었다(table 4).

<Table 4> Behavioral Problem of Adolescent

	Mean (sd)
withdrawn	4.19(3.39)
somatic complaints	3.89(5.64)
depression/anxiety	8.04(5.56)
social problems	3.35(2.57)
thought problems	2.75(2.60)
attention problems	6.64(3.40)
delinquent behavior	2.93(2.76)
aggressive behavior	13.06(7.15)
internalizing problems	15.52(10.70)
externalizing problems	15.99(8.94)
total behavior problems	52.09(24.70)
self-desructive/Identity problems	2.05(3.25)

4. 중학생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양육태도

중학생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양육태도의 하부 항목별 평균값은 다음과 같다. 합리적 지도가 31.79(sd=5.69), 애정적 태도가 30.24(sd=7.12), 권위적 태도가 23.23(sd=5.52), 과보호적 태도가 23.99(4.62), 성취 지향적 태도가 21.92(3.63), 적극적 참여 태도가 16.16(3.76)이었다(table 5).

<Table 5> child rearing attitude of mother (N=119)

	Mean(sd)
Rational guidance	31.79(5.69)
Affectionate	30.24(7.12)
Authoritarian	23.23(5.52)
Over protective	23.99(4.62)
Achievement oriented	21.92(3.63)
Active participation	16.16(3.76)

<Table 6> physical abuse

(N=116)

	none	1-2/yr	3-11/yr	12above/yr	N.A
	N(%)	N(%)	N(%)	N(%)	N(%)
Throwing the object at me	101(87.1)	10(8.6)	2(1.7)	3(2.6)	
Clutching and pushing	101(87.1)	11(9.5)	1(0.9)	3(2.6)	
Slapping on the cheek	99(85.3)	13(11.2)	2(1.7)	2(1.7)	
Kicking, pounding and biting	104(89.7)	5(4.31)	3(2.59)	2(1.72)	2(1.72)
Rod, stick, belt, broom beating	68(58.6)	37(31.9)	4(3.4)	7(6.0)	
Beating all over the body	108(93.1)	5(4.3)	1(0.9)	2(1.7)	
Burning with cigarette	115(99.1)	-	-	1(0.8)	
Threatening me with objects	114(98.3)	1(0.9)	-	1(0.9)	
Injuring me with objects	115(99.1)	-	-	1(0.9)	
Hospitalized by belting	115(99.1)	1(0.9)	-	-	

5. 신체적 아동학대

대상자들에게 지난 1년 동안에 경험했던 신체적 학대의 빈도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위의 물건을 집어 아이에게 던졌다'에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101명(87.1%), 1-2회가 10명(8.6%), 12회 이상이 3명(2.6%), 3-11회가 2명(1.7%)이었다. '아이를 움켜잡거나 때밀었다'에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101명(87.1%), 1-2회가 11명(9.5%), 12회 이상이 3명(2.6%), 3-11회가 1명(0.9%)이었다. '손으로 뺨 등을 때렸다'에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99명(85.3%), 1-2회가 13명(11.2%), 3-11회가 2명(1.7%), 12회 이상이 2명(1.7%)이었다.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차거나 물어뜯었다'에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104명(89.7%), 1-2회가 5명(4.31%), 3-11회가 3명(2.59%), 12회 이상이 2명(1.72%)이었다. '회초리, 굵은 혁대, 빗자루 등으로 때렸다'에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68명(58.6%), 1-2회가 37명(31.9%), 12회 이상이 7명(6.0%), 3-11회가 4명(3.4%)이었다. '온 몸을 마구 두들겨 뺨다'에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108명(93.1%), 1-2회가 5명(4.3%), 12회 이상이 2명(1.7%), 3-11회가 1명(0.9%)이었다. '담배 불 등으로 지졌다'에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115명(99.1%), 12회 이상이 1명(0.8%)이었다. '칼, 송곳, 망치, 도끼 등의 흉기로 위협했다'에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114명(98.3%), 1-2회가 1명(0.9%), 12회 이상이 1명(0.9%)이었다. '칼, 송곳, 망치, 도끼 등의 흉기를 사용해서 아이에게 상처를 입혔다'에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115명(99.1%), 12회 이상이 1명(0.9%)이었다. '아이를 때린 후 데리고 병원에 가 본 적이 있다'에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115명(99.1%), 1-2회가 1명

(0.9%)이었다(table 6).

6. 사회능력 및 문제행동과 신체학대와의 상관관계

사회능력과 아동학대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아동학대와 사회적 능력, 학업수행 능력, 총사회능력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문제행동중후군과 아동학대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아동학대는 외현화 문제( $r=.271, p=.001$ ), 총 문제행동( $r=.288, p=.002$ )와 유의하게 양의 상관관계에 있었다(table 7).

<Table 7> Correlations of social competence and behavioral problems with physical abuse (N=119)

		child abuse
social competence	social competence	.002(.985)
	school competence	.021(.831)
	total social competence	.035(.719)
behavioral problems	internalizaing problems	.180(.061)
	externalizing problems	.271**(.004)
	total behavioral problems	.288**(.002)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1 level.

7. 신체적 학대와 양육태도와의 상관관계

양육태도와 아동학대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동학대는 애정적 태도( $r=-.191, p=.050$ ), 적극적 참여 태도( $r=-.101, p=.035$ )와 유의하게 음의 상관관계에 있었다. 또한 아동학대는 권위적 태도( $r=.363, p=.000$ )와 유의하게 양의 상관관계에 있었

(Table 8) Correlations of child rearig attitude with physical abuse

	Rational	Affectionate	Authoritarian	Overprotective	Achievement	Active
Child abuse	-.149 (.126)	-.191* (.050)	.363** (.000)	.108 (.267)	-.064 (.517)	-.101* (.035)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1 level.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5 level.

다(table 8).

#### IV. 논 의

본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행동양식 및 청소년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신체적 아동학 대와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된 조사연구이다. 대상자의 연령은 16세가 69명(58%)으로 가장 많았고, 14세 35명(29.4%), 15세 10명(8.4%), 13세 5명(4.2%) 순이었다. 학년은 9학년이 78명(65.5%), 7학년이 41명(34.4%)이었다. 성별은 남학생이 62(52.1%), 여학생이 57명(47.9%)이었다. 아버지의 교육정도는 고졸이 79명(66.4%)으로 가장 많았고, 대졸 24명(20.2%), 중졸 이하가 16명(13.4%)였다. 어머니의 교육정도는 고졸이 71명(59.7%)으로 가장 많았고, 대졸 11명(9.2%), 중졸 이하가 34명(28.5%)였다. 사회경제적 상태는 중류 중에 중이 83명(69.7%)으로 가장 많았고, 중하 16명(13.4%), 중상 8명(6.7%), 하류 1명(0.8%) 순이었다. Hong(2000)의 연구에서 신체적 학대로 신고된 아동들의 가정이 월 수입 100만원 미만의 요보호 가정이었다는 점과 비교하면 본 연구의 대상자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고위험군은 아니었다.

대상 중학생의 사회능력의 하부 항목별 평균값은 사회성이 5.88(1.16), 학업수행이 3.56(0.85), 총 사회능력이 52.09(24.70)이었다.

대상 중학생의 문제행동증후군의 하부 항목별 평균값은 위축이 4.19(sd=3.39), 신체 증상이 3.89(5.64), 우울/불안이 8.04(5.56), 사회적 미성숙이 3.35(2.57), 주의집중 문제가 6.64(3.40), 비행이 2.93(2.76), 공격성이 13.06(7.15), 내재화 문제가 15.52(10.70), 외현화 문제가 15.99(8.94), 총 문제행동이 52.09(24.70), 자해/정체감 문제가 2.05(3.25)이었다. 이는 Park & Chung(2002)이 서울시 초등학교 4학년과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행동문제를 조사한 결과 내면화 행동문제가 9.18(6.33), 외현화 행동문제가 8.78(5.58) 나타난 것에 비하여 훨씬 평균값이 높은 것이었다. 그 이유는 사춘기로 인한 스트레스 개념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춘기는 2차 성장과 같은 급격한 신체적 변화와 심리적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시간이다. 따라서 사춘기가 되면 아동은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사회적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Petersen&Taylor, 1980). 따라서 이러한 스트레스와 심리적 혼란 및 갈등으로 인해 행동문제가 증가하게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Park & Chung, 2001). 또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평가한 연구(Oh & Lee, 1990)에서 문제행동은 남녀 모두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 결과를 우리나라 교육제도의 경쟁력 성격과 학업성취에 대한 지나친 부담, 그리고 문제가 있는 경우에 조기에 발견되어 적절한 처치를 받지 못함으로써 누락되어 그 정도가 심해질 가능성 등을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지적한 것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12-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조사한 연구(Lee, Kang, & Kwak 1998)에 비하여 신체 증상, 우울 및 불안, 사회적 미성숙, 주의집중, 공격성, 내재화 문제, 외현화 문제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도 높은 점수로 나타난 것이었다.

중학생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양육태도의 하부 항목별 평균값은 합리적 지도가 31.79(sd=5.69), 애정적 태도가 30.24(sd=7.12), 권위적 태도가 23.23(sd=5.52), 과보호적 태도가 23.99(4.62), 성취 지향적 태도가 21.92(3.63), 적극적 참여 태도가 16.16(3.76)이었다.

대상자들에게 지난 1년 동안에 경험했던 신체적 학대의 빈도를 조사한 결과, 주위의 물건을 집어 아이에게 던졌다(15명, 12.9%), '아이를 움켜잡거나 떠밀었다'(15명, 12.9%), '손으로 뺨 등을 때렸다'(17명, 14.7%)와 같은 경한 신체적 학대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는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Ahn(1998)의 연구

결과에서 각각 10%, 9%, 12.7% 발생한 것보다는 빈번히 발생하였으나 Ahn(2001)의 연구 결과에서 21%, 21%, 19.1% 발생한 것보다는 덜 발생한 것이었다. 심한 아동 학대에 해당하는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차거나 물어뜯었다'(10명, 10.3%), '회초리, 굵은 혁대, 빗자루 등으로 때렸다'(38명, 41.4%), '은 몸을 마구 두들겨 꺾다'(8명, 6.7%) 등의 신체적 학대는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Ahn(1998)의 연구 결과에서 각각 4.5%, 54.3, 10.1% 발생한 것과 Ahn(2001)의 연구 결과에서 4.1%, 51.7%, 6.8% 발생한 것에 비하여 특히 '회초리, 굵은 혁대, 빗자루 등으로 때렸다'에서 빈번히 발생한 것이었다. 아주 심한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는 항목인 '담배 불 등으로 지졌다'(1명, 0.4%), '칼, 송곳, 망치, 도끼 등의 흉기로 위협했다'(2명, 0.8%), '칼, 송곳, 망치, 도끼 등의 흉기를 사용해서 아이에게 상처를 입혔다'(1명, 0.4%), '아이를 때린 후 데리고 병원에 가 본 적이 있다'(1명, 0.4%)로 나타났는데, Ahn(1998)의 연구에서는 각각 0.4%, 0%, 0.8%, 0.4%로 나타났으며 Ahn(2001)의 연구에서는 '칼, 송곳, 망치, 도끼 등의 흉기로 위협했다' 항목만 0.7%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행동양식을 사회능력과 문제행동증후군으로 나누어 아동학대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아동학대와 사회적 능력, 학업수행 능력, 총 사회능력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문제행동증후군과 아동학대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아동학대는 외현화 문제( $r=.271$ ,  $p=.001$ ), 총 문제행동( $r=.288$ ,  $p=.002$ )과 유의하게 양의 상관관계에 있었다. 이는 아동학대가 청소년에게 중요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학생일수록 문제행동을 많이 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Ahn, 1996)와 일치하는 것이었다.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학대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아동학대는 애정적 태도( $r=-.191$ ,  $p=.050$ ), 적극적인 참여 태도( $r=-.101$ ,  $p=.035$ )와 유의하게 음의 상관관계에 있었다. 또한 아동학대는 권위적 태도( $r=.363$ ,  $p=.000$ )와 유의하게 양의 상관관계에 있었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들의 행동양식 및 그들이 인식하는 어머니의 양육태도, 그리고 신체적 아동학대의 정도를 파악하며, 신체적 아동학대와의 관계를 파악하여 신체적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

용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적은 첫째, 청소년의 행동양식과 신체적 아동학대와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둘째,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신체적 아동학대와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함이었다.

자료수집은 2002년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T시 1개 중등학교 4개 학급을 편의 표출하여 해당 학생을 대상으로 160개의 설문지 자료를 배부한 후 회수하였다. 연구도구로는 청소년 행동평가척도(K-YSR)와 Park & Lee(1990)의 어머니 양육태도 및 Straus(1979)의 가족갈등척도(Conflicts Tactics Scales) 중에서 폭력 척도를 변안, 수정(Kwon, 1992)한 신체적 아동학대 도구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K-YSR, SPSSWIN을 이용하여 평균, 빈도와 백분율, Pearson's correlation으로 처리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연령은 16세가 69명(58%)으로 가장 많았고, 14세 35명(29.4%), 15세 10명(8.4%), 13세 5명(4.2%) 순이었다. 학년은 9학년이 78명(65.5%), 7학년이 41명(34.4%)이었다. 성별은 남학생이 62(52.1%), 여학생이 57명(47.9%)이었다. 사회경제적 상태는 중류 중에 중이 83명(69.7%)으로 가장 많았고, 중하 16명(13.4%), 중상 8명(6.7%), 하류 1명(0.8%) 순이었다.
2. 대상자의 행동양식을 사회능력과 문제행동증후군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사회능력의 하부 항목별 평균값은 사회성이 5.88(1.16), 학업수행이 3.56(0.85), 총 사회능력이 52.09(24.70)이었다. 문제행동증후군의 하부 항목별 평균값은 위축이 4.19( $sd=3.39$ ), 신체 증상이 3.89(5.64), 우울/불안이 8.04(5.56), 사회적 미성숙이 3.35(2.57), 주의집중 문제가 6.64(3.40), 비행이 2.93(2.76), 공격성이 13.06(7.15), 내재화 문제가 15.52(10.70), 외현화 문제가 15.99(8.94), 총 문제행동이 52.09(24.70), 자해/정체감 문제가 2.05(3.25)이었다.
3. 대상자가 지각하는 어머니의 양육태도의 하부 항목별 평균값은 합리적 지도가 31.79( $sd=5.69$ ), 애정적 태도가 30.24( $sd=7.12$ ), 권위적 태도가 23.23( $sd=5.52$ ), 과보호적 태도가 23.99(4.62), 성취 지향적 태도가 21.92(3.63), 적극적인 참여 태도가 16.16(3.76)이었다.
4. 대상자들에게 지난 1년 동안에 경험했던 신체적

학대의 빈도를 조사한 결과, 경한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는 '주위의 물건을 집어 내게 던졌다'는 12.9%(15명), '움켜잡거나 떠밀었다'는 12.9%(15명), '손으로 뺨 등을 때렸다'는 14.7%(17명)의 비율로 발생하고 있었다. 심한 아동 학대에 해당하는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차거나 물어뜯었다'는 10.3%(10명), '회초리, 굵은 혁대, 빗자루 등으로 때렸다'는 41.4%(38명), '온 몸을 마구 두들겨 뺐다'는 6.7%(8명)의 비율로 발생하고 있었다. 아주 심한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는 '담배 불 등으로 지졌다'는 0.4%(1명), '칼, 송곳, 망치, 도끼 등의 흉기로 위협했다'는 0.8%(2명), '칼, 송곳, 망치, 도끼 등의 흉기를 사용해서 상처를 입혔다'는 0.4%(1명), '맞아서 병원에 가 본 적이 있다'는 0.4%(1명)의 비율로 나타났다.

- 대상 청소년의 행동양식과 신체적 아동학대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아동학대와 사회적 능력, 학업 수행 능력, 총 사회능력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문제행동과 아동학대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아동학대는 외현화 문제( $r=.271, p=.001$ ), 총 문제행동( $r=.288, p=.002$ )와 유의하게 양의 상관관계에 있었다.
- 양육태도와 아동학대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동학대는 애정적 태도( $r=-.191, p=.050$ ), 적극적 참여 태도( $r=-.101, p=.035$ )와 유의하게 음의 상관관계에 있었다. 또한 아동학대는 권위적 태도( $r=.363, p=.000$ )와 유의하게 양의 상관관계에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 청소년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 청소년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 중심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

- Ahn, D. H.(1999). *Construction of mandatory reporting system for prevention of child abuse*. The national assembly symposium for human right forum, 3-23.
- Achenbach, T. M. & Edelbroch, C. S. (1983).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and revised child behavior profile. University of Vermont, Department of Psychiatry.
- Ahn, H. Y. (1998). *Predictive model of child abuse in Moteh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Ahn, H. Y. (2001). Influences of Beliefs in Corporal Punishment to Physical Child Abuse in Elementary Student's Parent. *J of Korean Community Nursing*, 12(2), 329-337.
- Ahn, J. H.(1996). A Study on Stress Coping Styles, and Problem Behavior and Personality in Youth. *J of Korean Soc of School Health*, 9(2), 171-184.
- Kwon, J. Y.(1992). A study on the effects of physcial abuse in the emotions and behaviors. Unpulished Dissertation. Ewha Women's University, Seoul.
- Lee, S. H., Kang, K. M., & Kwack, Y. S. (1998). Rearing pattern of schizophrenic mothers and their children's behavior problems. *Korean J Child & Adol Psychiatr*, 9(2), 180-189.
- Oh, K. J. & Lee, H. (1990). Development of Korean Child Behavior Checklist: A Preliminary Study.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29(2), 452-462.
- Oh, K. J., Ha, E. H., Lee, H., & Hong, K. E. (2001). *K-YSR : Korean Youth Self Report*. Seoul.
- Park, J. A. & Chung, M. J.(2001). Relationships Between Strategies for coping with stress and behavior problems in school-age children. *아동학회지*, 22(3), 107- 122.
- Petersen, A. C. & Taylor, B (1980). The biological approach to adolescence: Biological change and psychological adaption. In J. Adelsen (Ed.), *Handbook of adolescent asychology*. New York: Wiley.
- Straus, M. A. (1979). *Measuring Intrafamily Conflict and Violence: The Conflict Tactics*



Scale.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Feb, 75-78

Yoon, H. M. (2000). Impact of Parent Education and Social Support Program on the Parental Attitudes toward Their Children, Parenting Satisfaction and Attitudes toward the Use of Corporal Punishment.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43(12), 246-269.

Hong K. E. (2000). The survey & sequelae of child abuse. Korea Center for Prevention of Child Abuse Seminar, 3-47.

- Abstract -

## A Correlational Study of Adolescents Behavior and Mothers Childrearing Attitude with Child Abuse Experience of the Adolescents

Ahn, Hye Young\* · Yi, Ggodme\*\*

**Purpose:** The aim of the study was to investigate how adolescents' behavior is correlated with child abuse they experience, and how childrearing attitude of mothers perceived by the adolescents is correlated with child abuse experience by the adolescents.

**Method:** A convenient sampling strategy was used. A total of 160 adolescen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Of the 160 responses, 116 were used for final analysis.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K-YSR program and SPSSWIN.

**Result:** The results were as follows.

Mild child abuse experiences reported by the subjects were Throwing the object at me (12.9%, N = 15), Clutching and pushing (12.9%, N = 15), and Slapping on the cheek

(14.7%, N = 17)'. Severe child abuse experiences reported by the subjects were Kicking, pounding and biting (10.3%, N = 10), Rod, stick, belt, broom beating using various objects (41.4%, N = 38), and Beating all over the body (6.7%, N = 8). Very severe child abuse experiences reported by the subjects were Burning with cigarette (0.4%, N = 1), Threatening me with objects such as a knife, a hammer, an axe, or a gimlet (0.8%, N = 2), Injuring me with the objects (0.4%, N = 1), and Hospitalized by belting (0.4%, N = 1). In terms of correlations among the main study variables, physical child abuse had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with externalizing problem ( $r=.271$ ,  $p=.001$ ) and total behavioral problem ( $r=.288$ ,  $p=.002$ ). Physical child abuse also ha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authoritarian childrearing attitude of mother ( $r=.363$ ,  $p=.000$ ). Physical child abuse had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s with mothers affectionate childrearing attitude ( $r=-.191$ ,  $p=.050$ ) and active participative childrearing attitude ( $r=-.101$ ,  $p=.035$ ).

**Conclusion:** Mothers childrearing attitude is a salient factor for preventing child abuse. In addition, child abuse is an important factor for preventing adolescent's behavioral problem.

**Key words :** Child abuse, Childrearing attitude, Social competence, Behavioral problem

\* Dept of Nursing, School of Medicine, Eulji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 Dept of Nursing, School of Medicine, Eulji University